



우리금융그룹

5년 후에 마이데이터  
실수 있을까?

연금도 내기도 같은데...  
어떻게 고를까?

전세살이 하면 하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이데이터  
조기은퇴 플랜

우리 마이데이터  
고수의 랭킹

우리 마이데이터  
주택 플랜

알길 **원**해?  
우리 **WON** 해!

우리 마이데이터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의 답  
우리 **WON**

우리WON은  
다들 물어봐요

본인인증 없이도 간편하게 금융생활을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은행



# 성북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 새마을금고 사회공헌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성북구새마을금고에서는 잘 사는 부자마을, 살기 좋은 복지마을 구현을 위해 운영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사업을 비롯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가치체계도

성북구새마을금고는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미션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4대분야 (세부사업)



#### 그린MG

친환경 그린MG캠페인  
도심녹지조성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봉사활동



#### 휴먼MG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저출생 및 육아지원  
평생교육(금융교실)  
장학사업  
사랑의 줌도리운동  
자원봉사활동



#### 소셜MG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 글로벌MG

새마을금고 국외 설립  
전파사업  
국외 새마을금고 대상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잇츠마누카캔디



NEW

잇츠마누카롤리팝

NEW



잇츠마누카구미젤리

# MORE THAN JUST CANDY.

자연의 선물 프리미엄 마누카꿀을 건강하게 담았습니다

✓ 마누카꿀이란?

독특하고 강력한 메틸글리옥살 (MGO Methylglyoxal)이라는 항균 성분을 함유한 꿀

여름이 왔다  
마음껏 청량하자





나타데코코 (Nata de coco) 함유!  
오물오물 씹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이국적인 태국 과일 음료, 모구모구



\*나타데코코는 코코넛을 주 원료로 한 식물성 젤리입니다.

\*오직, 성북청춘불패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소개는, 행사장 내에 있는 X배너를 참고 해 주세요.)



모구모구 공식 수입원: 한국주맥스(주)  
문의전화: 031-708-5664  
이메일: jumaxkr@hanmail.net



한국주맥스 스토어  
바로가기



# NOWWEATHER

Every thing you can imagine would be real

1

## 촬영 스태프를 위한 어패럴

제작사 체리코끼리가 쾌적한 촬영환경을 위해 스태프들을 위한 의류를 제작했습니다.

2

##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한 룩

활동성과 트렌디함을 겸비한 Nowweather는 스태프뿐 아니라 누구나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3

## 세상에 필요한 소금 3%

Nowweather의 매출 3%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나우웨더 이미지 디자인은 날씨 뇌양스를 활용한 그래픽 시리즈입니다. 외부 날씨와 관계되는 요소들과 촬영장비, 자연과 도시의 밤과 낮을 조합한 장면으로 촬영현장은 날씨에 민감하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송화

# 잔기지떡

떡

100% 우리쌀로 만든

잔기지떡은

전통방식 그대로

쌀막걸리를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 전통 발효

웰빙 떡입니다

떡

## 잔기지떡 보관방법 알려드립니다.

송화잔기지떡은 100% 쌀을 발효시켜 만들고 있습니다. 습하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는 제조일로부터 **상온 2일** 이후에는 꼭 **냉동보관** (6개월) 해주세요.

## 주문방법입니다.

반죽과 발효과정을 거쳐야 하는 떡으로 **수령 3일전** 예약 주문 가능합니다.

\*\* 전국 택배주문 가능 / 서울 성북구 및 인근지역 배달가능

## 냉동보관 하신 후 드시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시 1~2분 / 밥솥 사용시 7~8분 이면 복신한 떡이 됩니다. 기름 또는 버터를 이용 후라이팬에 구우시면 노릇노릇 별미 잔기지떡이 됩니다.

100% 우리쌀로 만든 전통 웰빙 떡입니다.

서울 강북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97

Mobile : 010-9904-7005

계좌 : 국민 010-9904-7005 / 예금주 : 이승노

공동주식회사

김용역

청룡·연천세상

잔기지  
서울 강북점

내부순환로

• 김용역역 앞역도

SCENT BOUTIQUE  
**CRAFT CODES**  
SINCE 2014

캔들, 디퓨저, 드레스퍼폼, 비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크라프트 코데즈는  
2014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도

후기 핸들링이나 광고 없이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입니다.

정직한 제품, 정확한 계량.

최대의 발향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비율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작합니다.

당신께 늘 좋은 것만 드릴게요



**영화제 무료상영**

**예매처**

디트릭스, 아리랑시네센터

**유의사항**

교환 및 취소는 상영시작 2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매는 상영시간 전까지 상영관 매표소에서  
티켓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매 및 취소 수수료는 예매사이트의  
기준을 따릅니다.

**문의**

Tel. 02-3291-5540 / Email sbff@sbculture.or.kr

**오시는 길**

아리랑시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2

**주차안내**

시네마빌딩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영화 관람 시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씩 부과

## 조직위원장 인사말

이승로 성북구청장



반갑습니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조직위원장,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국내 다양한 단편영화를 소개해 온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미래를 향한 확실한 도약을 꿈꾸며, 세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3년간, 성북청춘불패영화제를 통해 열정과 에너지를 품은 젊은 영화인들의 놀라운 단편영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창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민하며 연대하는 영화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804편의 출품작 중 34편의 단편영화가 본선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의 단편 초청작 24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영화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 ‘JUMP CUT’과 같이, 자유로운 시각으로 찰나의 순간을 재해석하는 당찬 창작자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를 위해 힘써주신 서노원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9인의 영화제 집행위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품성한 영화제를 만들어 주실 영화인분들과 단편영화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가 3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단편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덕분입니다. 성북구는 영화제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영화 예술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음이 만들어낸 영화의 선명한 외침,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해 왔습니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이러한 젊은 영화인들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며 그들이 미래를 모색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영화적 시도가 돋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창작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수한 작품들을 놓칠 수 없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34편의 작품을 본선 경쟁에 선보이게 되었으며, 성북시퀀스 12편과 특별프로그램 10편 등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하이퍼링크」와의 협업으로 4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으며, 작년에 이어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했습니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앞으로도 열정과 끈기로 작업해온 젊은 영화인을 응원하고 단편영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화제가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며 더욱 더 발전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를 통해 단편영화의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영**  
영화감독

2014년 영화 <들꽃>으로 데뷔하여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고, 이후 영화 <스틸 플라워>(2015)를 통해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제15회 마라케시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제14회 피렌체한국영화제 인디펜던트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재꽃>(2016)으로 제5회 우주산골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박석영 감독의 진정성이 담긴 '꽃 3부작'을 완성하였고 이후 영화 <바람의 언덕>(2019) 그리고 현재 차기작 <사인>(2023)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남다은**  
영화평론가

2004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데뷔했다. 다수의 매체에 영화 비평을 기고하며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영화 비평집으로 <감정과 욕망의 시간: 영화를 살다>(강, 2015)가 있다.



**김시은**  
영화배우

2008년 연극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통해 연극계에서 데뷔,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2014)를 시작으로, 독립영화 <귀향>(2016)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마이 스위트 레코드>(2016), <아가씨>(2016), <수색역>(2016), <1987>(2017), <너와 극장에서>(2018), <내가 사는 세상>(2019), <사자>(2019), <빛과 철>(2021), <여섯개의 밤>(2023) 등 장편/단편/독립영화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소희**

영화평론가

제20회 『씨네21』 영화평론상을 수상하며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인디포럼 신작전 프로그래머, 전주국제영화제 넷팩상 심사위원, 우주산골영화제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단편경쟁 예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정지혜**

영화평론가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영화에 관한 책 만들기, 영화비평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다. 유연한 삶과 글쓰기, 이 둘이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라며 그 길을 탐색 중이다.



**이도훈**

영화평론가

영화연구자.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전공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거리영화의 발전과 분화: 근대적 형식 과정과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립영화, 에세이영화, 포스트 시네마, 다큐멘터리, 디지털 시각효과 등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썼다. 저서로 『이방인들의 영화: 한국독립영화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갈무리, 2023) 등이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전문지 『오콜로』 편집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김보남**

프로그래머

영상문화비평지 『오콜로』의 편집인이자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서울독립영화제 단편부문,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국제단편, 부산국제영화제 국내단편, 정동진독립영화제 예심위원으로 활동했다.



**심희장**

프로그래머

성북청춘불패영화제 프로그래머. 씨티극장, 필름포럼을 거쳐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극장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젊은영화비평집단 자문위원, 서울단편영화제 코디네이터, 대한민국영화대상 심사위원, 유럽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이남**

영화감독

1997년 단편 <스윙다이어리>(1996)로 영화를 시작했다. <7AM, SLOWLY; opposite page>(2002), <기억의 환(2)>(2003), <ordinary 2nd day>(2005) 등 실험적 단편을 연출했다. 사진가, MV감독으로 활동하며 2010년 장편 <평범한 날들>(2010)을 연출했다. 2011년 단편 <metonymy>(2011)를 작업하고, 2015년 장편 <비치하트매술>(2015), 2021년 장편 <테우리>(2019)를 감독하고 단편 <여기 있다>(2021)를 감독했다.



**안보영**

프로듀서

필름영 대표이사. 2015년에는 여성영화인상, 올해의 독립영화인상을, 2018년에는 들꽃영화제 프로듀서상을 수상하였다. <재꽃>, <호랑이 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너와 나> 등 다수의 영화에 제작/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주최**

성북구

**주관**

[재]성북문화재단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우리은행

성북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세븐브로이

잇츠마누카

칠성사이다

한국주맥스

체리코끼리

나우웨더

잔가지

크레프트코드즈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서노원

집행위원

권호영

송효정

이현재

전준혁

조영각

주희

최두영

편장완

**파트너**

국민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예중, 고려대





**11.13 월**

12:30	<b>단편경쟁5</b>	줘어내전 / 가리사니 / 아맨 어 맨 / 함진아비 / 정동	Ⓣ 89min	해설
15:00	<b>단편경쟁9</b>	다정은 다정을 위해 / 기형종 / 미리클 / 가슴이 더질 것만 같아	Ⓣ 80min	해설
17:30	<b>단편경쟁1</b>	민희 /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 8월의 크리스마스	Ⓣ 78min	해설
20:00	<b>특별프로그램2</b>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겨울방학, 여름방학	Ⓣ 58min	GV

**11.14 화**

12:30	<b>단편경쟁2</b>	인터내셔널의 밤 / 시네마 클럽 / 서울극장	Ⓣ 70min	해설
15:00	<b>단편경쟁4</b>	산행 / 유령이 떠난 자리 / 자리없음 / 그리고 집	Ⓣ 77min	해설
17:30	<b>특별프로그램3</b>	KAFA 40주년 특별전: 청춘 판타지아	Ⓣ 80min	GV
20:00	<b>단편경쟁8</b>	손가락 / 들 / 목덜미 / 호수	Ⓣ 79min	GV

**11.15 수**

12:30	<b>단편경쟁7</b>	SUFFER / 엠마와 유이수 / 주인들 / 겨울캠프	Ⓒ 68min	해설
15:00	<b>성복시퀀스2</b>	나의 친구 / 나무 / 50cm / 여름의 작업실	Ⓣ 82min	GV
19:00	<b>폐막식</b>	시상 및 폐막작 상영		

## 개막식

### 일시

2023.11.9. 목 19:00

### 장소

아리랑시네센터 2관

### 식순

개막선언

축하공연: 싱어송라이터 박소은

개막작 상영

〈존재의 집〉

〈파도〉

### 진행

강진아

여현아

2023  
개막식



**존재의 집**

**[House of Existence, 2022]**

정유미 | 8min | 애니메이션 | DCP | B/W

집 하나가 있다. 그 집은 이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지붕과 벽이 허물어 지면서 집안 내부의 물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들 역시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고 사라져간다. 모든 것이 소멸된 순간, 혼자 남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파도**

**[The Waves, 2023]**

정유미 | 8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빈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여러 명의 사람이 하나 둘씩 해변에 등장한다. 그리고, 파도의 리듬 안에서 이들은 각각 자기만의 행동을 반복한다. 영원히 그 흐름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난다. 모두 해변을 떠나고 파도만이 그 자리에 남는다.

### Jump Cut

순간을 재해석하다.

영화편집 용어인 Jump Cut은 연속된 두 장면의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깨뜨리는 편집 기법이다. 영화적 실험을 꾀한 누벨바그의 대명사 '장뤽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가 이를 활용한 대표적 작품이다. Jump Cut 장면을 마주한 관객은 영화에 몰입하는 대신, 등장인물과 배경을 관찰하며 새로운 감각을 깨우게 된다.

제3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의 슬로건 Jump Cut은 순간을 재해석하는 대담성, 낯설게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 장르의 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영화인들의 당당함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들의 도약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영화제의 의지를 담았다.

###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올해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젊음의 자유분방함과 긍정적 에너지를 품은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를 선보였다. 다면적인 청춘의 내면을 드러내는 한글과 한자의 시각적 구조는 유지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젊은 세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이코닉한 공식 포스터는 슬로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열린 장치로 연속성의 흐름을 깨뜨리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 공식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청춘의 모습을 도자기 빚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 편집 기법 'Jump Cut'은 연속된 두 장면의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깨뜨린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점프'되는 체험은 오직 영상 예술 안에서만 가능하다. 점프된 시간과 공간은 젊은 창작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결국 거듭된 시도 끝에 자신만의 도자기를 빚어낸다.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대상 수상작 〈머드피쉬〉의 이다현 감독이 디렉팅했다.

올해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단편영화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지난해보다 많은  
34편의 단편경쟁작을 선보인다. 창의적인 시도와  
개성있는 연출, 영화적 실험이 돋보이는  
단편영화를 마주하며 자신만의 길을 내기 위해  
분투하는 창작자들의 열정을 사유하고자 한다.





**민희**

**[Minhee, 2023]**

전혜련 | 24min | 극영화 | DCP | color

고등학교 교사인 민희는 사람들에게 임신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기대한다. 민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라는 판정을 받은 어느날, 민희의 동생 다운증후군 주환이 사라진다.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The Sea on the Day When the Magic Returns, 2022]**

한지원 | 24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생각만 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마법을 잃어버린 세진. 뭘 원하는지 떠오르지 않아 사라져버린 마법.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을 6시간 앞두고, 세진은 아빠를 구하러 지겨운 바다로 향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In Summer, 2023)**

이가홍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결혼을 앞둔 은수는 어린 시절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러 강릉에 간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택시기사와 동행한다.



**인터내셔널의 밤**  
**(No boundary night, 2023)**

정석주 | 14min | 실험영화 | DCP | color

영화는 카메라가 꾸는 꿈이고  
꿈은 소진된 과거이고  
과거는 영화 속에 갇혀버린 밤이다



**시네마 클럽**  
**(Cinema Club, 2022)**

정윤지 | 27min | 다큐멘터리 | DCP | color

언제부터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날이 많아졌다.  
영화관을 전세 낸 것만 같은 기분도 잠시, 금세 외로운 마음으로 상영관을 나오곤 했다.  
나는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스크린 앞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던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



**서울극장**

**[Seoul Cinema, 2022]**

김태양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서울극장이 곧 문을 닫는다. 오래전 서울의 모습이 담긴 영화를 마지막으로 상영한다. 영화에 나온 거리를 낯선 사람과 함께 걷는다. 이전한다고 했던 이순신 동상은 제자리에 있다. 예전에도 이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것 같다.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남아있는 무언가를 생각한다. 그것들을 사랑하기로 한다.



**소설가의 일**

**[Writing in the railway, 2022]**

장현서 | 21min | 극영화 | DCP | color

M은 친구의 죽음에 관한 소설을 쓰려 하지만, 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가재가재**

**[Gazegaze, 2023]**

박주빈 | 22min | 극영화 | DCP | color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A는 심사가 한달 남은 상태로 원동화 오만장을 그려야 하는 무지막지한 상황을 자처한다.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는 색연필을 들 수조차 없게 되고, A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동기들을 한 명씩 만나보고 조언을 듣는다.



**오늘의 영화**

**[Today's Cinema, 2023]**

이승현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5년만에 연기에 다시 도전한 배우 철기는 <오늘의 영화> 사전 모임 자리에서 상대 배우 혜량을 처음 만난다. 모임이 끝나고 어색함을 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그들의 하루는 점점 영망이 되어간다.



**산행**  
**[Uphill, 2022]**

김정진 | 16min | 극영화 | DCP | color

달동네 꼭대기에 사는 할머니 명주가 장바구니를 짊어지고 힘겹게 오르막을 오른다. 낮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 어느새 해가 다 졌다.



**유령이 떠난 자리**  
**[A Long Alone, 2023]**

여은아 | 8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고독사 후 발견까지, 단절된 시공간의 기록. 한 인물의 고독사 이후 방치되어 있던 1년의 시간이 타임랩스(Time-lapse) 영상으로 재생된다. 집 내부에는 그의 치열했던 삶의 족적이 남아있고 관객은 그 흔적을 따라가며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집 안은 그가 사망한 시간에 멈춰 있다. 반대로 외부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집 안과 대비되는 느낌을 주게 된다. 1년 후 그의 시신이 발견되고 특수청소부들에 의해 고독사 현장이 치워진다.



**자리 없음**  
**(Unsited, 2023)**

곽서영 | 26min | 실험영화 | DCP | color

오키나와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잠들어 있는 남자의 사진을 찍으려다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열린 커버 사이로 노출된 필름 사진에서 오키나와라는 성과 우리 집을 떠올린다.



**그리고 집**  
**(I'm Here, 2022)**

정은옥 | 27min | 극영화 | DCP | color

10년 만에 엄마와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 다시 시작된 가족의 삶, 수진은 그들에게서 이상함을 느낀다.



**쥐아내전**

**[The New Tale of Rat Wife, 2023]**

김윤선 | 19min | 극영화 | DCP | color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핍박 받는 아내 앞, 자신과 똑같이 생긴 쥐아내가 나타난다.



**가리사니**

**[GARISANI, 2022]**

우진 | 8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갓 태어난 아기신은 삼신과 저승신의 눈을 피해 운명에서 달아나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아멘 어 맨**

**[AMEN A MAN, 2022]**

김경배 | 13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산재 살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노인.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재판장은 노인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고, 노인이 소년이었을 당시 참여한 연극이 시작된다. 연극 속 제비 역할을 맡은 소년은 제비가 받는 부당한 대우가 억울하지만, 아무도 그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다. 숨 막히는 억압에 점점 패닉하는 소년.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함진아비**  
**[Hamjinabi, 2023]**

이상민 | 25min | 극영화 | DCP | color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철규에게 오랜 고향친구 영훈이 찾아온다. 결혼을 앞둔 영훈은 철규에게 함진아비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친구의 부탁에 주저하는 철규. 그런데... 결혼 상대가 하필이면 순이라고 한다. '순이'라는 이름을 들은 철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음을 느끼고 동향 친구 '낙균'과 함께 함을 팔러 신부의 집으로 향한다.



**정동**  
**[Jeong-dong, 2023]**

최우진 | 23min | 극영화 | DCP | color

새로 이사한 집에서 겪는 기이한 현상 탓에 신경쇠약에 걸린 유빈. 상황 파악을 위해 어릴 적 친구 소담과 하승이 그의 집에 모인다. 중학생 시절 삼인방이었던 유빈, 소담, 하승. 그들 각자의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던, 서로에게도 말 못 하던 트라우마와 상처가, 가랄히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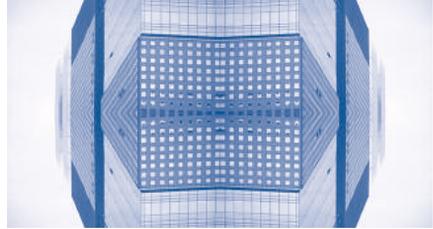


**집 보러 왔습니다**

**[I'm here to see the house, 2023]**

정윤아 | 22min | 극영화 | DCP | color

자가 아파트 소유의 꿈을 이루었지만 무리한 대출  
이자로 하우스푸어가 된 선욱. 집을 다시 팔고자  
하지만 세입자 자원으로 인해 쉽지 않다.



**mosaic**

**[2022]**

김주원 | 5min | 실험영화 | DCP | color

당신과 나의 도시를 그리며



**벌레**  
**[BUG, 2023]**

명세진 | 22min | 극영화 | DCP | color

이제 막 성인이 된 공장노동자 김하나는 ‘노동조합’ 이니 ‘하청계약직’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할머니와 둘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절실할 뿐이다.



**하부구조의 친구들**  
**[Three Friends in Substructure, 2023]**

이세형 | 25min | 극영화 | DCP | color

세 친구가 있다. 이들은 같은 대학을 다니는 동갑내기들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맨홀 구멍을 중심으로 요상한 하루 아침을 보내게 된다.



**SUFFER**  
**[2022]**

서가연 | 15min | 다큐멘터리 | DCP | color

2019년 1월,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왔다. 마비된 다리가 자유를 되찾던 순간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백한다.



**엠마와 유이수**  
**[EMMA & YUISOO, 2022]**

김미조 | 5min | 극영화 | DCP | B/W

가까운 미래. 40대 사무직 노동자 유이수는 사장이 큰 맘 먹고 들여온 일꾼 로봇 엠마로 인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녀를 제거할 것을 결심한다.



**주인들**

**[The Owners, 2022]**

조희영 | 20min | 극영화 | DCP | B/W

각자의 애인과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친구가 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숲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놓인 가방을 발견한다. 얼마 뒤, 두 친구는 강원도로 집을 보러 온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그 가방이 자신의 것이라며 소리친다



**겨울캠프**

**[WINTER CAMP, 2023]**

장주선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영양사로 갓 부임한 '은혜'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딸 '주영'을 아토피 치유 캠프에 보내고 싶다.



**손가락**

**[The Shaking Hands, 2023]**

목규리 | 21min | 극영화 | DCP | color

배우이자 연기학원 강사인 은정은, 연기할 때마다 찾아오는 긴장을 이겨내고 싶다. 그 와중에 학원생인 푸름이 연기할 때마다 손가락을 떠는 게 거슬린다.



**들**

**[Deul, 2022]**

최세담 | 19min | 극영화 | DCP | color

딸을 잃은 엄마 혜경. 죽은 딸 '들'이 찍었던 캠코더 영상을 발견한다. 영상에서 들과 동성 친구 '지수'가 연인처럼 보이는 묘한 느낌을 받게 되고, 혜경은 지수를 찾아나선다.



**목덜미**

**[The nape, 2023]**

김유라 | 26min | 극영화 | DCP | color

교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온 다예.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엄마 영선의 영어학원 폐원을 돕던 중 학원비가 두 달째 미납된 학생과 마주치게 된다.



**호수**

**[Lake and I, 2022]**

박소현 | 13min | 극영화 | DCP | color

복학을 앞두고 태백으로 떠났던 정현은 친구 호수의 전화를 받고 서울로 돌아온다. 정현은 호수네 목욕탕 청소를 도우며, 왜 태백에 갔냐는 호수의 물음에 대답한다. 청소를 끝낸 두 사람 사이에 정답 없는 대화와 물이 흐른다. 두 사람도 흐르고 있다.



**다정은 다정을 위해**  
**[Kindness wants kindness, 2022]**

홍석우, 목규리 | 11min | 극영화 | DCP | color

석우와 약 연애를 시작한 다정은 석우와 조용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 이 모든 것은 다 방구 때문이다. 다정은 어렸을 때부터 방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가스실금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석우와 시끄러운 곳만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지속해오던 다정은, 더 이상 석우를 속이는 것은 그만 두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려고 석우를 집에 초대한다.



**기형종**  
**[Teratoma, 2022]**

변정원 | 25min | 극영화 | DCP | color

28세 조은일. 난소에 눈과 이빨, 머리카락이 달린 종양이 살고 있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남자친구, 엄마, 여자친구는 각자 이 괴물이 생겨난 원인을 짐작하고 기형종은 말을 걸어온다.



**미라클**  
**(miracle, 2022)**

예란희 | 24min | 극영화 | DCP | color

오늘도 소개팅에 실패한 여자는 단골 막걸리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서 우연히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사랑'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MY HEART IS GOING TO EXPLODE!, 2023)**

정인혁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가스라이팅으로 점철된 연애를 마친 수진은 마음을 다 잡기도 전에 문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 전날 술을 먹다가 눈이 맞아 문정과 자게 되었는데, 문정의 몸은 빛이 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록 빛이 뿜어져 나왔다. 친구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수진을 나무라지만, 학교 위로 출현한 ufo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하나 둘 터져버린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젊은 영화인'을 모티브로 구성된 비경쟁 섹션 '성북시퀀스'는 성북구 관내대학(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제작된 우수한 단편영화를 통해 동시대 지역영화 지형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성북시퀀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성북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으로 진행된 <하이퍼링크-영상예술분야>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의 연속성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예술대학이 많다는 성북의 특징을 살려 「제작 지원, 멘토링, 상영 지원」의 선순환 시스템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퍼링크-영상예술분야>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성북시퀀스 오픈버스: 오해와 이해 사이'를 통해 상영된다.

# 지역성 젊은 영화인



**마이크로웨이브 러브  
[MICROWAVE LOVE, 2023]**

권찬영 | 27min | 극영화 | DCP | color

우울한 날을 보내는 지은은 우연히 전자레인지의 소리를 듣게 된다.



**간바레 사토미!  
[Fighting Satomi!, 2022]**

박민정 | 13min | 극영화 | DCP | color

반짝이는 꿈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일본인 사토미는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이들이 모여 만든 이 팀이 과연 더 큰 무대의 문을 노크할 수 있을까?



**로스트 앤 파운드**  
**[Lost and found, 2023]**

권호영 | 19min | 극영화 | DCP | color

혜영은 편의점에서 지갑을 줍는다. 혜영은 지갑에서 콘돔과 지갑의 주인인 젊은 여성 연서가 학교 교수와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정의 꼬임에 넘어가 지갑을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슬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혜영은 지갑을 돌려주려고 연서에게 연락을 한다. 이슬은 혜영의 일을 학보사에 제보하고, 학보사는 이것을 기사화 하려고 하는데, 연서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돌려주려고 간 혜영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린다. 명품 지갑을 잃어버리고 줄지에 도둑으로 몰린 혜영은 다시 지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데 엉뚱한 성격의 이슬이 혜영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지갑을 같이 찾으러 나선다.



**이씨 가문의 형제들**  
**[The Lee's Family, 2023]**

서정미 | 25min | 극영화 | DCP | color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시골집이 장손에게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 나의 친구 [My friend, 2023]

김성하 | 17min | 극영화 | DCP | color

인생이 멋있으면 되는 전직 조직폭력배 주인공  
준엽에게 옛 절친 용세가 칼을 들고 찾아온다.



### 50cm [2023]

김소정 | 22min | 극영화 | DCP | color

시각장애인 가영과 그녀의 애인 은정은 그들의  
방식으로 마라톤을 준비하지만, 계속해서 다투게 된다.



### 나무 [Tree, 2020]

조현서 | 19min | 극영화 | DCP | color

리조트 주차요원인 도훈과 창식은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룸메이트다. 창식은 서툰 일처리로 관리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하는 게 일상이다. 도훈은 그런  
창식을 안쓰러워하다가 차츰 방관하고 외면하게  
된다. 어느 날 창식이 사라지고, 도훈은 그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 여름의 작업실 [Together, 2023]

최고은 | 24min | 극영화 | DCP | color

#### 1. 지민과 민경

민경은 혼자 방을 쓰는 지민과 친해지고 싶다.  
하지만 지민은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하필 둘만  
남은 어느 날 밤, 지민이 방에서 귀신을 보았다며  
뛰쳐 나온다.

#### 2. 수정과 해나

더운 여름날, 해나는 오늘도 전남친에게 편지를  
쓴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편지가 번지자 수정에게  
짜증을 낸다. 수정은 해나를 참을 수 없게 된다.

#### 3. 원지와 연우

바쁜 원지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연우가 거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연우가 사라진다.



**생일선물**  
**[Birthday Blowout, 2023]**

정재훈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아들의 21번째 생일날, 엄마는 생일상을 차려 놓고 아들을 방에서 나오게 하려 설득한다. 하지만 아들은 오늘 어차피 운석이 떨어져 다 죽는 날이라며 나가기를 거부하고, 둘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쟁을 시작한다.



**안녕? 나의 개복치씨**  
**[Hello, Stranger, 2023]**

이성현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열흘 전 든일의 여자친구인 복희는 말없이 사라졌다. 든일은 복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시간이 지나고 든일은 복희를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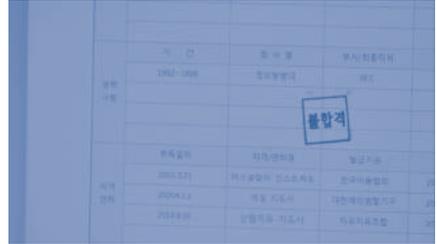


**불러줘**

**[Call me, 2023]**

김소정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명문대 의대 진학이 목표인 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교 1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 1등은 늘 같은 반 자명의 몫이다. 자명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기말고사를 앞두고 엄마는 진을 특별한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데려간다. 운명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어쩐지 진의 모습이 이상하다. 자명을 이기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



**출동! 정의방범대**

**[Let's go! Justice-Man, 2023]**

최인일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정의방범대가 해체된 지 20년, 레드가 흩어진 멤버들을 찾아나선다.

# 특별전

## 1. 이연 배우전: 또 다른 사연

〈소년심판〉, 〈길복순〉, 〈방과 후 전쟁활동〉, 〈이로운 시기〉 등 나이도 성별도 뛰어넘는 호연으로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선 배우 이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총횡무진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연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선정작 〈절해고도〉와 '와이드앵글-한국 단편 경쟁' 부문 〈거북이가 죽었다〉 등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입증받았다. 우리는 이연의 초창기 단편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사랑스러운 그녀의 '또 다른 사연'을 마주하고자 한다.

## 2.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겨울방학, 여름방학

올해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작인 〈여름방학〉은 조금 다른 모녀의 관계를 통해 가족에 대한 감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세밀하게 조직된 감정의 변화들이 매끄럽게 쌓이며 이야기에 파장을 올려나가고, 감독의 전작 〈겨울방학〉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공간적 연장이 영화에 대한 삶의 태도로 느껴진다. 연작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김민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삶의 여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3. KAFA 40주년 특별전: 청춘 판타지아

1984년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기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40주년 특별전. 흥미로운 내러티브와 도발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KAFA의 판타지 장르영화 4편을 선보인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배출한 수많은 거장들의 뒤를 잇는 패기 있는 신진 감독들의 '환상곡'(Fantasia)은 우리 영화제의 가치를 오롯이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 저녁 준비 시간

초청 | 이연 영화배우  
모더레이터 |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



**음파**

**[How to Breathe under the Water, 2017]**

김은재 | 15min | 극영화 | MOV | color

단짝친구 세정이 죽고 난 후, 혼자가 되어버린 연주. 연주는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세정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는 세정이 수영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렇게 연주가 조금씩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정의 환상도 점차 희미해져간다.



**코스모스**

**[Cosmos, 2020]**

임종민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권고사직서를 받은 주봉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려고 한다. 만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을 적기 시작하는 주봉. 한편 해수는 코스프레 촬영회에 가야 하는 날, 아빠 주봉이 자신의 가발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북이가 죽었다**

**[Source of the Odour, 2021]**

김효은 | 29min | 극영화 | DCP | color

인정은 회사에서 잘리고 키우던 거북이가 죽자 모든 것에 대해 남탓만 한다. 죽은 거북이를 들고 친구가 소개해준 면접을 가게 된 인정은 면접도 망치고 절친과도 갈등을 일으켜 헤어진 후 혼자 남게 되자,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알 수 없는 냄새의 원인이 자신의 손에 든 거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 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 2022]**

이해지 | 37min | 극영화 | DCP | color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온 서울에서의 생활을 처분하는 아이들. 임신 중지를 앞두고, 엄마와 집이 있는 속초로 향한다.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겨울방학, 여름방학**

11.13.월 20:00

초청 | 김민성 영화감독  
모데레이터 | 김시선 영화평론가



**겨울방학**

**[Winter vacation, 2022]**

김민성 | 30min | 극영화 | DCP | color

아이들 좀 봐달라는 누나의 전화에 인환(34세, 남)은 제사 때도 잘 가지 않던 고향 고성에 내려간다. 인환의 누나가 작년 재혼을 하면서 남편 쪽에서 데려온 딸 수연과 원래 조카들이 세 쌍둥이를 돌보게 된 인환. 인환과 수연의 어색하고, 담담한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여름방학**

**[Summer vacation, 2023]**

김민성 | 28min | 극영화 | DCP | color

수연은 바쁜 아버지 없이 처음으로 혼자 친엄마의 10주기 기일을 준비하기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발신자는 수연의 새엄마 영은. 수연을 도와주기 위해 수연이 사는 곳으로 찾아온 영은이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도 잠시, 친엄마의 기일을 새엄마인 영은이 챙겨주려는 것이 불편한 수연과 마음을 굳게 먹고 왔지만 묘하게 차가운 수연의 태도에 작아지는 영은의 하룻밤이 지나고 성숫날 아침이 밝아온다.

정민수, 조경원, 노경우 감독, 김승비 배우  
모더레이터 | 송경원 영화 평론가/기자



**공원로 316**  
**[316 Gong street, 2021]**

정민수 | 26min | 극영화 | DCP | color

누군가 있었던 흔적은 명확하지만 생존자는 없는 봉고차. 무전에서는 그냥 복귀하라고 난리다. 과거 자신도 생존자였던 구조대원은 동질감 때문인지 봉고차를 끝까지 수색한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구조대원이 그냥 복귀하려고 찰나,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다. 발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우선 총을 겨누는 구조대원. 감염자인지 생존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동지**  
**[Doong-ji, 2020]**

조경원 | 20min | 극영화 | DCP | color

중학교 2학년인 한동지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중이다. 어느 날 각자의 집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하는 조별 과제가 주어지지만 아무도 동지와 한 조가 되려 하지 않는다. 반장인 진이는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러 동지를 자신의 조에 받아들인다. 동지는 반장의 집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보고 이를 훔치고, 같은 조원인 소연은 동지를 의심한다. 하지만 정작 반장은 카메라를 도둑맞은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동지는 그런 반장이 더 부담스럽다. 자신의 집을 방문할 차례가 다가올수록 동지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정민수, 조경원, 노경우 감독, 김승비 배우  
모더레이터 | 송경원 영화 평론가/기자



**파란 거인**

**[A Blue Giant, 2021]**

노경우 | 7min | 애니메이션 | DCP | color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몸은 너무 커서 물을 마실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답답한 그는 결국 집을 부수고 나간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반짝임에 매료되어, 그 빛을 찾아 길을 나선다. 그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몸의 크기가 작아져 마침내는 나뭇잎을 탈 수 있을 만큼 작아진다. 마침내 그는 빛을 만나 그 크기를 회복하는데, 집에 돌아와보니 집의 크기에 딱 맞는 몸이 되어있었다.



**온 우주의 영주에게**

**[Dear Yeong-ju, 2022]**

최성은 | 27min | 극영화 | DCP | color

26살 우연은 엄마와 싸우다 찢어진 귀를 꿰매기 위해 병원에 간다. 죽기 위해 병원에서 알약을 잔뜩 먹은 우연은 1996년에서 깨어나 어린 엄마와 아빠를 만난다. 자신의 불행이 부모의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우연.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기 위해 애쓴다.

### 고려대학교 호진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영화 해설 프로그램을 알게 된 호진회는 영화 감상을 주 활동으로 하는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자유롭게 영화를 선정하고 감상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호진회는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 후 진행되는 작품 해설 프로그램을 맡았다. 영화 평론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와 같은 학술적인 지식과 분석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영화제에 걸맞는 '청춘'의 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학생'의 눈으로 34편의 영화를 바라본다. 영화를 마주하기 전 관객들에게 최대한 진솔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이야기하며 한편 한편 소중하게 만들어진 영화의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를 전한다. 호진회의 작품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영화를 만나고 기억하길 바란다.

### 청춘페프

성북청춘불패영화제의 '청춘'과 'Festival Friends'의 친근함을 더한 '청춘페프'는 우리 영화제의 반짝이는 자원활동가 명칭이다. 운영팀, 프로그램팀, 홍보팀으로 구성된 '청춘페프'는 우리 영화제를 찾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단편영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올해 첫 걸음을 내디딘 '청춘페프'와 함께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더욱 생동감 있게 나아가고자 한다.

## 영화제 스태프

### 운영본부장

김준환

### 운영팀장

양근규

### 프로그래머

심희장

### 기획

정지혜

### 홍보

전수희, 홍아린

### 경영지원

김혜진, 유신혁

### 스크리닝 매니저

황태원, 신승주, 이명식, 오혜림

### 현장 매니저

오서영, 김경혜, 류혜림, 남궁민화, 김아란, 김원근,  
서하나, 조경숙, 오정숙, 안진숙

### 기술 매니저

박준우, 김성현, 이선우, 강성이

### 언론보도

엄경석

### 포스터&아트 디렉팅

기조측면

### 페스티벌 트레일러

영화감독 이다현

### 페스티벌 하이라이트

모티스튜디오

### 모더레이터

김보년, 김소희, 김시선, 송경원, 이도훈, 이화정,  
장성란, 정지혜

### 개폐막식 연출

박계훈

### 사운드 디렉팅

빈티지 프랭키

### 행사기록

표고필름 고경아, 표세희

**청춘페프**

구지현  
권희  
김선우  
김수빈  
김예은  
김예진  
김준기  
김지수  
김진우  
김진우  
김채영  
노선경  
명지원  
박다현  
박서연  
박예림  
변예원  
서지은  
성서연  
손채현  
송준혁  
안혜진  
양도원  
오유빈  
우희범  
윤지원  
윤채우  
이다예  
이소원  
이시정  
이지혁  
이지호  
이효리  
장민서  
조수현  
조유진  
조혜준  
최고은  
최서비

허영주  
홍재희  
황민수  
황은성

**도움 주신 분들**

KAFA한국영화아카데미 박선하  
국민대학교 박준희  
매치컷 김기현  
베리 김주아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안정윤  
서울특별시 박진솔  
세븐브로이 나현정  
센트럴파크 홍성윤  
영화감독 가성문  
영화감독 신수원  
영화감독 양익준  
영화감독 이다현  
영화감독 임선애  
영화감독 장건재  
영화감독 주영  
영화감독 최승연  
영화배우 김선영  
영화배우 이윤지  
영화배우 최민영  
영화진흥위원회 강병택  
인디스토리 이솔희, 박누리  
잇츠마누카 이인은  
잔가지 이승노  
크레프트코데즈 백수정  
퍼니콘 김태연  
포스트핀 이나현, 권소연  
필름다빈 백다빈, 문입생  
필름어블 허정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윤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두영, 강승표  
호우주이브 백선우

## 제3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카탈로그

### 발행처

[재]성북문화재단

### 책임편집

양근규 심희장 정지혜

### 편집 및 자료관리

홍아린 유신혁

### 디자인

기조측면

### 인쇄

영일출판인쇄

### 아리랑시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2

[www.sbff.co.kr](http://www.sbff.co.kr)

JUMP  
CUT

